

350억 승마장 방문 서장훈 "말 출연 영화·드라마 다 봐"

등록 2026.05.26 10:46:45



[서울=뉴시스] 27일 오후 9시55분 방송되는 EBS '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'에는 '엘리베이터 백만장자'로 불리는 김기영 대표가 출연한다. (사진=EBS) 2026.05.26.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방송인 서장훈이 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.

27일 오후 방송되는 EBS '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'에는 '엘리베이터 백만장자'로 불리는 김기영 대표가 출연한다.

김 대표는 특수 엘리베이터 발명·제조 기업을 이끄는 인물이다. 그는 국내 승마 문화를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35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약 2만 평 규모의 승마장을 조성했다.

이날 방송에서 서장훈과 장예원은 김 대표의 승마장을 찾는다. 승마장에는 거대한 돔 형태의 실내 승마장이 마련돼 있다. 지붕은 7700장의 유리로 만들어졌다.

김 대표는 "제가 직접 설계했다"며 "이 승마장을 짓기 위해 종합건설회사를 샀다"고 밝힌다.

방승에서는 마방도 공개된다. 이곳에는 총 112개의 마방이 있으며 약 60마리의 말이 생활하고 있다.

서장훈은 마방을 돌며 말들에게 당근을 나눠줬다. 이를 본 김 대표는 "24년 동안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, 서장훈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"고 말한다.

서장훈은 "말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찾아서 본다"고 밝히며 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.

영국 왕실에서 마차를 끄는 말로 알려진 '테리우스'도 등장한다. 테리우스의 큰 발을 본 서장훈은 "발이 나만 하다"며 놀라워한다.

승마장 최고령 말인 31살 서양 조랑말 '샤론'도 소개된다. 사람 나이로 약 80세에 해당하는 샤론을 본 서장훈과 장예원은 당근을 건네며 교감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